

二葉亭四迷의 작품에 나타난 대우표현 고찰

- 동작에 대한 표현형식을 중심으로

이 여 희
(경원대학교)

국문초록

사람의 행위 중 동작에 대한 대우표현을 고찰하고자 할 때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어적인 행동이다. 예를 들면 동작에 대한 존경표현의 대표적인 형식에 『お読みになる』, 『ご出発になる』 등의 『お(ご) ーになる』라는 형식이 있다. 이것은 공경할 만한 대상의 동작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피하고, 자연적인 말투를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의 뜻으로, 『ーになる』부분은 『夏が過ぎて秋になる』의 『になる』나, 『いつの間にか大人になる』의 『になる』와 같다. 이와 같이 경어적인 행동은 보다 넓은 의미로서의 대우표현의 중핵을 이루며 연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도 二葉亭四迷의 작품을 대상으로 동작에 대한 대우표현 형식을, 경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대우 표현형식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辻村敏樹는 『明治大正時代の敬語』에서 동작에 대한 표현형식을 객관적, 은혜적, 관계적 표현형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표현형식을 연구하였는데, 본 고에서도 辻村敏樹의 분류방식을 따랐다. 각각의 작품 안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표현형식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시기별, 작품별로 대우 표현형식의 사용에 어떤 차이가 생겨나는지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 있어서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언문일치 운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1기(메이지 20년대 초), 언문일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시기를 2기(메이지 20년대 말—30년대),

언문일치 운동이 확립되는 시기를 3기(메이지 30년대 말 이후)로 구분하기로 하겠다.

동작에 대한 표현형식 중에, 객관적 표현형식이란 상위자의 동작에 대해 타인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것으로서 나타내는 표현형식으로 『お(ご)ーなさる』, 『お(ご)ーになる』 등이 있다. 은혜적 표현형식이란 동작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특수한 형식으로 내면적으로는 상하(上下)의식보다는 오히려 이해(利害)관계와 결부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다. 『お(ご)ーくださる』, 『お(ご)ーいただく』 등이 있다. 관계적 표현형식이란 자신의 동작에 있어 타인과 관계되는 것을 말하며, 『お(ご)ー申す』, 『お(ご)ーする』 등이 있다.

二葉亭四迷의 작품에 나타난 동작에 대한 표현형식의 경우, 『お(ご)ーなさる』형식이 가장 많은 용례수를 보이는데, 그것은 이 형식이 이들 작품이 쓰인 시대를 대표하는 형식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お(ご)ーだ』형식 또한 1기부터 3기에 걸쳐 작품 안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온 형식임을 알 수 있다.

한편 『お(ご)ーなさる』형식과 대비되는 신형식으로 『お(ご)ーになる』가 있는데, 현대경어에서 경어의 동사표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お(ご)ーになる』는, 3기가 되어 서야 정착하게 된 어라고 말해진다. 그 때문인지 1기 작품에는 그 용례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2, 3기 작품에서는 그 용례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くださる』식의 말투와 『いただく』식의 말투를 비교해 보면, 오래된 형식인 『くださる』식의 말투가 『いただく』식 보다 다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お(ご)ーもうす』형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 형식인 『お(ご)ーもうす』가 자주 사용되고 있었던 것에 비해 『お(ご)ーもうす』를 대신하여 점차 사용율이 높아지고 있었던 『お(ご)ーいたす』는 2, 3기 작품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현대어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인 『お(ご)ーする』도 『うき草』와 『其面影』에 이르러 서야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들 작품이 쓰인 시기는 시대적으로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지만, 대우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형식이 여전히 다용되고 있는 한편, 점차 새로운 형식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객관적 표현형식, 은혜적 표현형식, 관계적 표현형식

1. 머리말

사람의 행위 중 동작에 대한 대우표현을 고찰하고자 할 때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어적인 행동이다. 예를 들면 동작에 대한 존경표현의 대표적 형식에 「お読みになる」·「ご出発になる」 등의 「お(ご)ーになる」라는 형식이 있다. 이것은 공경할 만한 대상의 동작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피하고 자연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의 뜻으로, 「になる」부분은 「夏が過ぎて秋になる」의 「になる」나, 「いつの間にか大人になる」의 「になる」와 같다.

또한 겸양어 「いただく」는, 본래 「雪をいただく山々」와 같이 「頭の上へのせる」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 그와 같은 동작을 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그러한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표현하기 때문에 겸양어가 된 것이다¹⁾.

이러한 경어적인 행동은 대우표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연구되어 왔으며, 쓰지무라도시키(辻村敏樹)는 『明治大正時代の敬語』에서 이러한 동작에 대한 표현형식을 객관적, 은혜적, 관계적 표현형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표현형식을 연구하였다.

본고에서도 쓰지무라(辻村)의 분류방식에 따라, 二葉亭四迷의 작품을 대상으로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변화해 왔을 언어 형식 특히 동작에 대한 표현 형식을, 경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 대우표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후타바테이시메이(二葉亭四迷)를 비롯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언문일치 운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1기(메이지 20년대 초), 언문일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를 2기(메이지 20년대 말~30년대), 언문일치 운동이 확립되는 시기를 메이지 3기(메이지 30년대 말 이후)로 구분하기로 하겠다.²⁾

1) 辻村敏樹, 『敬語論考』, 明治書院, 1992, pp.146-169

2) 쓰지무라도시키(辻村敏樹)는 『敬語論考』(p.399)에서 근대 경어에 대한 시기를 1기 형성기(메이지 10년대 말까지), 2기 성립기(메이지 2,30년대), 3기 완성기(메이지 40년대 이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의 1기(20년대)와 2기(30년대)는 쓰지무라의 2기 성립기에 해당된다.

분석 대상은 1기 작품으로 메이지 20~22년(1887~1889)에 쓰인 『浮雲』와 메이지 21~22년(1888~1889)에 쓰인 『めぐりあひ』, 2기 작품으로 메이지 29년(1896)에 쓰인 『片恋』와, 메이지 30년(1897)에 쓰인 『うき草』, 그리고 3기 작품으로 메이지 39년(1906)에 쓰인 『其面影』와 40년(1907)에 쓰인 『平凡』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II. 동작에 대한 대우표현형식

객관적 표현형식이란 상위자의 동작에 대해 타인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것으로서 나타내는 표현형식으로 객관적 표현형식에는 「一なさる」, 「お(ご)一なさる」, 「お(ご)一になる」, 「お(ご)一です」, 「お(ご)一だ」, 「お(ご)一あそばす」, 「一(ら)れる」 등이 있다.

은혜적 표현형식이란 동작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특수한 형식으로 내면적으로는 상하(上下)의식보다는 오히려 이해(利害)관계와 결부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다. 은혜적 표현형식에는 「お(ご)一くださる」, 「一てくださる」, 「お(ご)一いただく」, 「一ていただく」, 「一てさしあげる」, 「一てあげる」 등이 있다.

관계적 표현형식이란 자신의 동작에 있어 타인과 관계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겸양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³⁾ 관계적 표현형식에는 「お(ご)一申し上げる」, 「お(ご)一申す」, 「お(ご)一いたす」, 「お(ご)一する」 등이 있다.

1. 객관적 표현형식

1—(1) 「一なさる」

- ① 「聞けば昨夕本田さんと何だか入組みなすったそうだけれども、そんな事があっちゃ誠に迷惑しますネ。」

3) 하야시시로(林四郎), 『敬語用法辞典』, 明治書院, 1974, p.199

(『浮雲』お政→文三 p.136:2)

②『幾歳だと聞きなざるだアネ? 知りましねえ。四十越したんべえ。』

(『めぐりあひ』老人→自分 p.374:4)

③『何で病院さ往かれるもんで! 動かして見なさろ、直ぐおッ死ぬべえから。』

(『うき草』老爺→アレクサンドラ p.5:下9)

④『貴方さへ端然として小夜なんぞに関係なさらなきや、誰が酔狂らしい、泣いたり怒つたり狂人の真似なんか為ますもんか。』(『其面影』時子→哲也 p.151:上9)

⑤『炭屋さんが見て来なすったんだッさ。』(『平凡』母→私 p.254:21)

「一なざる」는 무로마치(室町)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존경어로, 독립된 형태로도, 「一なざる」·「お(ご)一なざる」형태로도 사용된다.

특히, 「お(ご)一なざる」는 에도(江戸)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경어형식의 하나로, 「お」를 제외한 형태의 「一なざる」는, 오늘날 명령형 「一なさい」로 다용되고 있다⁴⁾.

『浮雲』에서 「一なざる」형식은, 여성인 お政와 お勢가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お政의 경우 이야기 상대는 연령상 하위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めぐりあひ』의 경우 용례 사용자는 남주인공 自分(3례), 신평민 노인(1례), 젊은 남자 하인(3례)으로 모두 남성이다.

4) 고마쓰히사오(小松寿雄)는 「一なざる」는 무로마치(室町)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존경어로 활용은 하2단활용(下二段活用)과 4단활용(四段活用)이 있었다. 전기 가미카타(上方)語에는 하2단이 많다고 전해지지만, 관동지방에서는 일찍이 4단화되어 있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4단활용으로부터 많은 파생형(派生形)이 생겨났으며, 연용형에는 음편형 「なさい」, 「なさっ」외에, 사투리의 형태로 「なすっ」, 「なせえ」가 있었다. 명령형은 「なされ」보다 「なさい」가 일반적이며, 더욱이 어느 계층에서는 「なせえ」로 사투리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에도(江戸)어의 주변에는, 「なされろ」, 「なさろ」등도 사용되었다. 명령형 「なさい」는 활발히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점차로 생략되어 갔다. 「なさい→ない→ねえ」, 「お…なさい→お…」, 「…なさい→…な」외에, 「さい」라는 명령도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辻村敏樹(1971) 『敬語史』大修館書店, pp.349-350)

『浮雲』에서는 경의를 나타내기보다 품위어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めぐりあひ』에서는 『浮雲』에서와는 달리 이야기 상대나 화제의 인물을 높게 대우하고 있다.

「一なさる」는 『うき草』의 경우는 13례 나타나 있고, 용례 사용자는 신분이 낮은 노인(1례), 노파(1례), 농부(1례), 그리고 귀족 신분의 루진(5례), 레지네프(1례), 다리야(3례), 나탈리아(1례)이다. 「お(ご)一なさる」형식이 귀족 신분의 사람들에게 의해 높은 대우도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다용된 것에 비하면 「一なさる」형식은 좀 더 편한 형식으로 사용된 것 같다.

「一なさる」⁵⁾는 『平凡』에 2례 나타나 있고, 『其面影』에 11례 나타나 있다. 위 예문과 같이 『平凡』에 나타나 있는 「一なさる」의 경우, 어머니가 아들인 私에 대해 사용한 예이며, 이야기 상대인 아들에 대한 대우형식이 아니라 화제의 인물에 대해 경의를 갖고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其面影』에는 『平凡』에 비해 좀 더 많은 용례수가 나타나 있으며 사용법도 다양하다.

1—(2) 「お(ご)一なさる」

- ① 「石田さんの所へ往てお頼みなさるも課長さんの所へ往てお頼みなさるもその趣は同一じゃありませんか」

(『浮雲』お勢→文三 p.145:15)

- ② 「真個に貴君は御存じでありませんの、お会なすったことは御座

5) 【なさる(為さる)】 동사 「なす」에 조동사 「る」가 붙은 어(語). 이 어가 자주 사용되고 특히 보조동사적 용법을 발달시켜 중용(重用)된 것은 무로마치(室町)시대 이후의 일이다. 로드리게스(ロドリゲス)의 『日本大文典』에, 「동사 Nasu(なす)와 접사 Ruru(る)의 복합어이고, 그 경의(敬意)의 정도는 구어에서 줄 수 있는 최고(最高)의 것이다. 조사 V. (お)를 씌워 동사 어근 뒤에 붙일 수 있다.」(土井忠生訳)고 되어 있으며, 「御分別なさるる」등의 예도 들고 있다. 또한 「なさる」를 기초로 한 「お(ご)一なさる」란 형태는 에도시대, 특히 에도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어형식의 하나였는데, 에도시대 말기에 성립한 「お一になる」와 잠시 교체되어 오늘날에 「お(ご)一なさる」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 「お(ご)一なさい」(명령형, 연용형)만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お一になる」에 명령형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松村 明(1971)『日本文法大辞典』明治書院, p.591)

いませんの?」

(『めぐりあひ』美婦人→自分 p.398:17)

③『偽なら、偽にしてお置きなさいだが、實際の話です。』

(『うき草』ピカーソフ→ゲーリヤ p.19:上17)

④『先程お着きなさいましてね、お待兼どうぞでございます。さあ、何卒。』

(『其面影』旅館のお神さん→哲也 p.133:下6)

⑤『誰も居ないのかい?十番さんで先刻からお呼びなざるおやないか。』

(『平凡』お神さん→従業員 p.327:7)

『お(ご)一なざる』형식도 여성인 お政와 お勢가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구시대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お政의 『お(ご)一なざる』사용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お政와 文三의 대화에서 お政는 ‘文三’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화제의 인물인 ‘文三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お(ご)一なざる』형식을 사용하는 장면이 많은데, 장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우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めぐりあひ』에 『お(ご)一なざる』형식은 16례 나타나 있으며, 용례 사용자를 보면 미부인이 사용한 4례 이외에는 모두 남주인공 自分が 사용하고 있으며, 귀족 신분의 自分が 이야기 상대인 귀족 여성을 높게 대우하여 사용하고 있다.

『お(ご)一なざる』형식은 『うき草』에서는 77례로 이 형식이 매우 다용되었던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등장인물이 주로 귀족신분의 여성이거나 남성 그리고 지식층의 사람들이고 그들의 대화 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의미적인 면에서의 대우도도 높은 것 같다.

『片恋』에도 38례의 용례가 보이므로 이 형식은 20년대에 이어 30년대에도 꾸준히 사용되어 온 형식임을 알 수 있다.

『其面影』에는 39례 나타나 있으며 대부분 여성에 의해 사용되고 있고 그 경우 이야기 상대는 남성이 된다. 하녀가 주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장모가 사위

에게, 여관 주인이 손님에 대해 사용하고 있다.

친한 사이에서 『お(ご)ーなさる』가 사용되는 장면의 분위기는, 안정적이고 편한 분위기라기보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격앙된 상태에서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편하고 딱딱한 분위기일수록 더 경의가 높고 정중한 표현을 선택해서 사용하려는 심리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お(ご)ーなさる』는 『平凡』에 7례 나타나 있으며, 어머니가 딸에게, 사촌 오빠가 사촌 여동생에게, 하녀가 주인에게, 여주인이 종업원에게 등 용례수에 비해 사용자층이 다양하다.

1-(3) 『お(ご)ーになる』

① 『『ミハイロフスコエ』でせう、知てゐますとも。時にはお出いでになりますか?』

(『めぐりあひ』自分→貴婦人 p.391:3)

② 『何やら面白い論文をお書きになつたとかで、主人の批評を聴きたいと仰しやるさうで。』

(『うき草』パンダレーフスキー→アレクサンドラ p.11:上1)

③ 『葉村さんですか? 今しがたお歸りに成りましたが…』

(『其面影』下女→哲也 p.96:上18)

원래, 『お(ご)ーになる』는 에도시대에 생겨났다고 한다. 쓰지무라(辻村)에 의하면, 이것은 무가(武家)의 문장어(文章語)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 근세 말기에 이르러 서민의 구두에도 오르내리게 되었는데, 일반화 된 것은 1기 이후라고 한다⁶⁾.

『浮雲』에서는 용례를 찾을 수 없고, 『めぐりあひ』에만 1례 나타나 있는 이 『お(ご)ーになる』형식은 현대 경어의 동사표현의 중심을 이루는 형식이기도 하다.

『お(ご)ーになる』형식은 『片恋』에도 7례 나타나 있는데, 1기 작품에서 거의 용례를 찾을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2기 작품에서는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

6) 辻村敏樹(1971) 『敬語史』大修館書店, p.348

같다. 또한 의미적인 면에서는 존경의 의미를 갖고 사용하고 있다기보다 정중하게 대우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其面影』에도 9례 나타나 있으며 이 경우『お(ご)ーになる』는 주로 여성들에 의해 가벼운 경의를 갖고 편하게 사용된 대우형식으로 보인다.

1—(4) 『お(ご)ーです』

①『オヤ何人かと思ったらお珍しいこと。此間はさっぱりお見限りですネ。』

(『浮雲』お政→昇 p.59:5)

②『御存じおや有りませんか、以太利歌で… Passa que'colli といふ句で始まるのは!』

(『めぐりあひ』壮年の男→貴婦人の妹 p.392:18)

③『若し人間が皆彼奴のやうだつたら、万と錢でも取らなければ、生きてゐるのはお辞りですな、どうも…』

(『うき草』ピガーソフ→バシストフ p.126:上13)

④『小夜も泣て責めたでせう? 貴方も嘸お困りでせう?』

(『其面影』時子→哲也 p.152:上12)

⑤『今お着きでしたか?』(『平凡』伯母→私 p.270:15)

『浮雲』에서 『お(ご)ーです』형식은, お政가 昇에게 사용한 2례 밖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연령상 상위자인 お政가 조카의 동료인 昇에 대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대를 높게 대우한다기보다 품위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めぐりあひ』에도 6례 나타나 있으며, 용례 사용자는 自分(2례), 노인(1례), 중년 남자(1례), 귀부인(1례), 미부인(1례)로 용례수에 비해 사용자층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お(ご)ーです』형식은 『うき草』와 『片恋』에도 각각 9례, 5례 나타나 있으며 『うき草』의 경우는 여성 지주 귀족인 다리야의 사용례가 돋보인다. 『片恋』의 경우는 같은 신분의 사람끼리 또는 연령상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お(ご)ーです』는 『平凡』에 7례, 『其面影』에 16례 나타나 있다. 『平凡』에서는 백모와 조카 사이에서, 여관 주인의 조카와 손님사이에서 사용된 예이

며, 『其面影』의 경우는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 언니가 이복 여동생에 대해, 형부가 처제의 선배에 대해 사용하고 있다.

『お(ご)ーだ』가 연배가 있는 여성에 의해 스스로없는 사이에 사용되고 있음에 비해, 『お(ご)ーです』는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서먹서먹한 관계이거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お(ご)ーだ』

①『フム学问々々とお言いだけれども立身出世すればこそ学问だ。』
(『浮雲』お政→お勢 p.68:17)

②『アノM-rは(此方は)『ルキヤヌイチ』を御存じだとよ。』
(『めぐりあひ』貴婦人→妹 p.392:2)

③『おや、これでお別れだ。私はこれから田圃へ往かなきゃならん。』
(『うき草』ワルインツォーフ→アレクサンドラ p.9:下13)

④『小夜の事ですか? 先方でお急ぎださうですから、』
(『其面影』時子→哲也 p.62:上14)

⑤『若しか俊坊の様な事にでもなつたら、如何おしだ? 可哀さうぢやないか。』
(『平凡』祖母→父 p.228:11)

『お(ご)ーだ』형식은 비교적 오래된 말투로, 『だ』로 받는 형식은 메이지 2·3기 이후에 쇠퇴했다고 한다⁷⁾. 『浮雲』에는 51례 나타나 있고, 사용자는 お政 35례, お勢 11례, 昇 4례, 山口 1례 사용하고 있다. 『お(ご)ーだ』형식도, 『お前さん何とお言いだ』와 같이 주로 여성인 お政와 お勢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장면은 상위자인 お政가 하위자인 文三나 お勢에 대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우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めぐりあひ』에서도 적은 수이지만, 용례(3례)를 찾을 수 있는데, 용례 사용자는 여관 주인, 自分, 귀부인이다.

7) 辻村敏樹, 『敬語史』, 大修館書店, 1971, pp.327-328.

1기 작품인 『浮雲』에서 주로 여성에 의해 사용되었던 「お(ご)ーだ」형식은 2기의 『うき草』에서는 좀 더 다양한 등장인물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お(ご)ーだ」형식은 주로, 화자인 신분상 또는 연령상 상위자가, 이야기 상대인 하위자를 편하게 대우하는 장면에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서로 잘 아는 사이이므로 화자의 품위유지 수준에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平凡』과 『其面影』에도 각각 2례, 24례 나타나 있다. 『平凡』의 경우,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가 딸에게 즉 부모가 자식에게 사용하고 있으며 품위유지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其面影』에서도 모녀 관계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사용하고 있으며, 장모가 사위에게 사용한 예도 있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 사용한 예도 있다.

즉「お(ご)ーだ」는 『平凡』에서도 『其面影』에서도 주로 연배가 있는 여성에 의해 스스럼없는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お(ご)ーあそばす」

①『御免遊ばせ…何か御用?』(『浮雲』お鍋→お勢 p.158:6)

②『ネ、御覧遊ばせ、何にも不思議な事はございますまい、世間間で。』

(『めぐりあひ』美婦人→自分 p.398:20)

③『参つて承ればお留守で。御舎弟様に承りましたが。セミヨノフカへお出で遊ばしたのださうでございますな?』

(『うき草』パンダレーフスキー→アレクサンドラ p.8:下10)

④『お帰り遊ばせ。』(『其面影』小夜子→哲也 p.45:下10)

⑤『お帰り遊ばせ、』(『平凡』伯母→伯父 p.277:5)

「あそばす」는 「お(ご)」를 붙인 동사 연용형 또는 명사에 붙여 존경을 나타내는 어이다⁸⁾. 위 용례에서와 같이 『浮雲』에는, 하녀인 お鍋가 사용한 1례가

8) 【あそばす】 「する」의 존경어. 「なさる」의 의미로, 다른 동사에 붙여 「おーになる」 「一なさる」란 의미를 좀 더 공경하여 사용한 말투. 근세 이후의 용법으로, 에도(江戸)에서는 「一あそばす」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① 접두어를 동반하여 동사 연용형에 붙은 형태
是をお浴遊してお上りあそばせ。(滑・浮世風呂・二)

나타나 있고, 『めぐりあひ』에는 동등한 신분이며 서로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여성인 미부인이 남성인 自分に 대해 사용한 1례가 나타나 있다.

『お(ご)ーあそばす』는 『うき草』에 9례의 용례가 나타나 있는데 신분상 하위자인 남성이 상위자인 여성에게 사용하거나,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격식을 차린 말투로 사용하고 있다. 『片恋』에는 용례가 나타나 있지 않았다.

또한 3기 작품인 『平凡』과 『其面影』에도 각각 1례, 2례 나타나 있으며,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사용한 예와 친척관계에서 처제가 형부에 대해 사용한 예인데 두 작품 모두 『お(ご)ーあそばす』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높게 대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お(ご)ーあそばす』의 용례가 다른 형식에 비해 그다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작품의 설정에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것은 이 형식의 경의(敬意)가 매우 높은데다 당시 이미 많이 쇠퇴한 형식인 것으로 생각된다.

1-(7) 『(ら)れる』

① 『ムッフェーリ男は専門に経済学を修て居られるのでせうか、それとも又、公務や交際の片手間に、経済学は面白いと云ふので、修て居られるのでせうか?』

(『うき草』ピギーソフ→ルーヂン p.28:下7)

② 『東京へ行かれたんですか?』 (『其面影』哲也→俊子 p.180:上6)

③ 『先生、此方が御面会を願はれます、先生、お使に行つて参りませうー』

(『平凡』伯父→私 p.279:9)

『(ら)れる』는 메이지 20년대의 작품에는 그 용례를 찾을 수 없었으나, 30년의 『うき草』에는 9례 나타나 있다. 용례 사용자는 판달레프스키(2례), 피가소프(4례), 루진(2례), 다리야(1례)로, 다리야를 제외하면 모두 남성이며, 신분상 하위

勝山にお髪をおあげさせ遊ばして、さぞお美しかろう。(同・三)

- ② 동작성 있는 한어(漢語)에 붙은 경우(한어 앞에 접두어를 동반하기도 한다)
 あなたはいろいろ御苦勞あそばすだろうと (人・仮名文章娘節用・六)
 (마쓰무라이키라(松村 明)(1971)『日本文法大辞典』明治書院, pp.4-6)

자인 남성이 상위자인 여성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남성이 상대 남성에게 격식 차린 말투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平凡』과 『其面影』에서도 용례를 찾을 수 있는데, 『平凡』에서 백부가 조카인 私에 대해 사용한 1례는 이야기 상대인 조카에 대한 대우가 아니라, 화제의 인물인 손님(文안에서는 此方)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반면 『其面影』에서의 경우는 이야기 상대에 대한 대우표현으로, 화자인 哲也가 이야기 상대인 俊子を 높게 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浮雲』『めぐりあひ』, 『片戀』『うき草』, 『其面影』『平凡』에 나타나 있는 객관적 표현형식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각 작품별 시기별로 사용도수와 사용자수를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 『浮雲』, 『めぐりあひ』, 『片戀』, 『うき草』, 『其面影』, 『平凡』에 나타나는 객관적 표현형식의 사용 분포

	1기				2기				3기			
	浮雲		めぐり あひ		片戀		うき草		其面影		平凡	
	사용 도수	사용 자수	사용 도수	사용 자수	사용 도수	사용 자수	사용 도수	사용 자수	사용 도수	사용 자수	사용 도수	사용 자수
おー になる	0	0	1	1	7	4	13	6	9	5	0	0
おー なざる	93	5	16	2	38	5	77	9	39	9	7	5
おー です	2	1	6	5	5	3	9	3	16	3	7	3
おー だ	51	4	3	3	11	3	17	5	24	4	2	2
おーあそ ばす	1	1	1	1	0	0	9	3	2	1	1	1
ーなざる	11	4	7	3	0	0	13	7	11	4	2	1
ー(ら)れ る	0	0	0	0	0	0	9	4	5	2	1	1

<표1>에 의하면, 「お(ご)ーなざる」형식이 다양한 사용자에 의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 형식이 위 작품들이 쓰인 시대를 특징짓는 형식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형식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인 「お(ご)一になる」의 사용례는 『めぐりあひ』에서의 1례를 제외하면 『浮雲』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지만, 2, 3기 작품에서는 그 용례를 찾을 수 있다.

또한 「お(ご)一だ」형식과 「お(ご)一です」형식을 비교해 보면, 이 경우에도 「お(ご)一です」형식보다 「お(ご)一だ」형식이 더 자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お(ご)一あそばす」형식은, 높은 경의(敬意) 때문인지 『うき草』에서의 9례를 제외하면 사용례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또한 가벼운 경의를 나타내는 존경어인 「一(ら)れる」는 존경어로서는 문장어(文章語)에 많고 구어체에는 그 용례가 적는데, 그 때문인지 1기 작품에는 사용례가 나타나 있지 않았다. 하지만 2기 이후의 작품에서는 조금씩 사용례를 찾을 수 있다.

즉 二葉亭四迷의 작품에 나타나 있는 객관적 표현형식 중에, 에도(江戸)어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お(ご)一なさる」형식과 「お(ご)一だ」형식이 1기부터 3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사용례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비교적 새로운 형식인 「お(ご)一になる」나 「お(ご)一です」의 2, 3기 작품에서의 분발을 확인할 수 있다.

2. 은혜적 표현형식

대우표현 중에는, 동작을 하는 사람(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특수한 경의의 양상도 있는데, 그것은 「一してやる」, 「一してもらう」를 둘러싼 여러 형태의 표현형식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과, 그 미묘한 변화에 의해 「一してあげる」, 「一してさしあげる」, 「一していただく」, 「一してくださる」등, 여러 가지 형식과 뉘앙스를 갖는 것이다⁹⁾.

또한 사회적인 인간관계 의식에 기초하여 생각해 볼 때, 상하의식(上下意識)보다, 오히려 이해관계(利害關係)와 결부되어 있는 쪽이 은혜·피 은혜(恩恵·被恩恵)의 관계이다. 예를 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9) 하야시시로(林 四郎) 외, 『敬語用法辞典』, 明治書院, 1974, p.209.

빌리는 사람, 교사와 학생, 선배와 후배, 부모와 자식 등의 관계이다. 이들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선배와 후배』와 같이 『친소(親疎)』의식에서 볼 때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는, 은혜를 입더라도 그 의식이 경어를 사용하는 데까지 도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浮雲』의 경우 특히 그러한 면이 많다.

은혜적 표현형식에는 『お(ご)ーくださる』, 『ーてくださる』, 『お(ご)ーいただく』, 『ーていただく』, 『ーてさしあげる』, 『ーてあげる』 등이 있다.

2-1 『お(ご)ーくださる』

① 『どうぞどうぞ一日も早うお引取り下されたく』 (『浮雲』文三の母 → 文三 p.11:18)

② 『能く有る仮面舞蹈の繰言と思召さないやうに。御察し下さいまし、私は今其所どころでは…』

(『めぐりあひ』美婦人 → 自分 p.398:4)

③ 『まづ、お聴き下さい… 私は勿論辯解に来たのであるが、併し、一寸かい摘んで云つて了ふ訳にはいかない。』 (『うき草』ルーチン → ワルィンツォーフ p.89:上15)

④ 『どうもお待たせ申しました、余程お待ち下すつて?』 (『其面影』小夜子 → 哲也 p.97:上14)

『お(ご)ーくださる』형식은 『浮雲』에 1례 나타나 있으며, 보통의 회화문에서가 아니라 서간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めぐりあひ』에서는 自分과 미부인이 서로 상대방을 이야기 대상으로 하여 1례씩 사용하고 있고, 대화 내용상 매우 어색하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우도 또한 높다.

『うき草』에도 5례 나타나 있고 용례사용자는 판달레프스키(1례), 루진(2례), 와루인초프(1례), 다리야(1례) 이며 『ーてくださる』에 비해 높은 대우도 때문인지 사용례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또한 『其面影』의 경우에도 용례를 (2례) 찾을 수 있는데, 친구 사이에 장난처럼 사용되고 있거나 처제가 형부에 대해 격식을 차려 매우 높게 대우하는 장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2—(2) 「一てくださる」

① 「お勢さん、お志は嬉しいが、もう母親さんと議論やすることは
罷めて下さい」

(『浮雲』文三→お勢 p.55:17)

② 「マア、下に坐て下さい、私のいふ所を聞て下さい。」

(『めぐりあひ』自分→美婦人 p.396:13)

③ 「これから将来は如何なるか請合はれないが、一所に来るなら来いと何故仰しやつて下さいませんか?」

(『うき草』ナターリヤ→ルーヂン p.101:下11)

④ 「其様な事仰有らずに、まあ、私の言ふ事を聴いて下さいな。」

(『其面影』小夜子→時子 p.108:上5)

⑤ 「どうも何なりと御遠慮なく仰有つて下さいまし。」(『平凡』お糸→私 p.329:6)

『浮雲』에서 「一て下さる」는 사촌 오빠인 文三가 사촌 여동생인 お勢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お勢さん、一て下さい」의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お(ご)一くださる」의 용례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은 것에 비해 「一て下さる」형식이 9례 나타나 있다는 것은 이 표현형식이 「お(ご)一くださる」에 비해 비교적 편하게 사용된 형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一てくださる」형식은 『めぐりあひ』에도 3례 나타나 있으며, 『めぐりあひ』에서는 자신이 미부인에게, 중년 남자가 귀부인의 여동생에게, 즉 동일한 신분하에서 남성이 여성에 대해 정중하게 대우할 때 사용하고 있다.

『うき草』에도 40례 나타나 있는데 20년대의 『めぐりあひ』에서는 동일한 신분하에서 남성이 여성에 대해 사용하고 있던 것에 비해 30년의 『うき草』의 경우는 신분이나 성별의 구별이 없이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기 작품인 『平凡』과 『其面影』에도 각각 2례, 63례 나타나 있다. 『平凡』의 경우는 종업원이 손님에 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其面影』에서는 연령상 하위자가 상위자에 대해 사용한 예가 있는데, 모두 가벼운 경의를 갖고 상대를 대우하는 장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2—(3) 「一ていただく」

- ①『唯貴嬢の口から僅一言、『断念めろ』と云ッて戴きたい』(『浮雲』
昇→お勢 p.86:16)
- ②『それにほんたうに不思議な事でかう数次御眼に懸ってみれば…
まんざら御縁が無いでもなし。
聞て戴きませう。世間には気の知れない方も有ったもので、』(『
めぐりあひ』美婦人→自分 p.397:16)
- ③『兎に角私は自分も紳士と思ひ、また貴君をも紳士とお見掛け申し
て参つたのですから、一つ篤と考へて戴きたいのだが、私は深く
貴方を信ずるから…』(『うき草』ルーチン→ワルインツォーフ
p.89:上8)
- ④『先方でお急ぎ下さうですから、明日朝の中に、葉村さんのお宅迄
伺つて、冬子さんに連れてッて戴くことにしましたの。』(『其面
影』時子→哲也 p.62:上15)
- ⑤『彼を買つて頂いて上げるから…仕方がないから。』(『平凡』母→
女 p.272:7)

「一ていただく」는『浮雲』에 1례, 『めぐりあひ』에 2례 나타나 있으며 『めぐりあひ』의 경우는 화자인 미부인이 처음 만나는 상대인 자신에 대해 매우 정중하게 대우하는 장면에서 사용하고 있다.

「一ていただく」는『うき草』에 2례, 『平凡』에 1례, 『其面影』에 15례 나타나 있다. 『其面影』에서의 용례 사용자를 보면, 가족관계에서 상위자인 어머니가 딸에게 사용한 예도 있지만, 時子, 小夜子, 哲也와 같이 주로 젊은 남녀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いただく」형식의 경우 『浮雲』나 『めぐりあひ』에서는 그다지 사용례를 찾을 수 없지만, 『其面影』에서는 꽤 많은 사용례가 나타나 있다. 이는 「いただく」형식이 1기 작품인 『浮雲』나 『めぐりあひ』가 쓰인 시점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던 표현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2—(4) 「一てあげる」

- ①『早く母親さんを此地へお呼び申すようにして上げたいもんだと思わない事は唯の一日も有りません』
(『浮雲』お政→文三 p.49:8)
- ②『女が甚い嫌ひで、何の彼の云つては攻撃なさるです。眼を開けて上げて下さい。』
(『うき草』ダーリヤ→ルーチン p.34:上15)
- ③『待つてらッしやいよ。今戸締りをして来てから、衣服を着易へさせて上ますから。』
(『其面影』時子→哲也 p.184:下5)
- ④『私ん所に二つ有るけど、皆塞がつてて、貸して上げられないわ。』(『平凡』雪江→私 p.275:17)

「一てあげる」는 『浮雲』에 6례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5례는 숙모인 お政가 사용하고 있다. 화자인 お政와 이야기 상대인 文三·お勢 세 사람 모두 가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미적인 면에서 「一てあげる」의 사용은 경어적인 의미보다는 품위어로서의 역할로 보인다.

『平凡』에도 6례, 『其面影』에도 7례 나타나 있으며, 연령상 상하의 구별이 없이 사용되고 있고 대우도도 그다지 높지 않다. 반면 「一てさしあげる」의 용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이상으로 『浮雲』, 『めぐりあひ』, 『片恋』, 『うき草』, 『其面影』, 『平凡』에 나타나 있는 은혜적 표현형식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각 작품별 시기별로 사용도수와 사용자수를 정리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 『浮雲』, 『めぐりあひ』, 『片恋』, 『うき草』, 『其面影』, 『平凡』에 나타나는 은혜적 표현형식의 사용 분포

	1기				2기				3기			
	浮雲		めぐりあひ		片恋		うき草		其面影		平凡	
	사용도수	사용자수	사용도수	사용자수	사용도수	사용자수	사용도수	사용자수	사용도수	사용자수	사용도수	사용자수
おー くださる	1	1	2	2	0	0	5	4	2	2	0	0
一て くださる	9	4	3	2	15	3	40	9	63	5	2	1

おー いただく	0	0	0	0	0	0	0	0	0	0	0	0
ーて いただく	1	1	2	1	0	0	2	1	15	4	1	1
ーてさし あげる	0	0	0	0	0	0	0	0	0	0	0	0
ーて あげる	6	2	0	0	0	0	1	1	7	3	6	4

위의 <표2>에서 「くださる」식의 말투와 「いただく」식의 말투를 비교해 보면, 전자(前者)에 비해 후자(後者) 쪽이 용례 수가 적는데, 이것은 두 표현형식의 시대적인 차이(史的으로는「いただく」쪽이 새로운 형식)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 3기 작품에서의 「ーてくださる」형식의 다용(多用)이 눈에 띄는데, 이는 즉 이 형식이 이 시대 일반인들 사이에서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ーてくださる」나 「ーてあげる」형식에 비해 「お(ご)ーくださる」나 「お(ご)ーいただく」, 「ーてさしあげる」는 그 사용례가 적거나 전혀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것은 이들 표현이 새로운 형식이고 따라서 대우도도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단, 「お(ご)ーいただく」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 형식이 아직 이 시기에 사용되지 않던 형식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에 비해, 「ーてさしあげる」형식은 이미 근세 말기에 그 사용례가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위 작품에는 이 표현이 사용될 만한 장면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관계적 표현형식

경어의 내용분류에 관한 명칭으로서 관계경어(關係敬語)라는 말이 있다. 미쓰야시게마쓰(三矢重松)에 의하면, 타인을 존경하는 존타경어(尊他敬語), 자기를 비하하는 자비경어(自卑敬語), 말을 공손하게 하는 대화경어(對話敬語)와 함께, 자기의 동작에 있어 남과 관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겸양어(謙讓語)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¹⁰⁾

관계적 표현형식에는 「お(ご)一申し上げる」「お(ご)一申す」「お(ご)一いたす」「お(ご)一する」가 있다.

3—(1) 「お(ご)一申す」

- ① 「イエネ此間もお嘸し申た通りお前さんのお嫁の事に付ちゃア内でも些と考えてる事が有るんだから…」
(『浮雲』お政→文三 p.39:5)
- ② 「貴嬢がたをお見かけ申したので、見る気もなかったが、ツヒ嬢がたの、恐くは、秘してお置きになりたい事をも目撃したからです…」(『めぐりあひ』自分→美婦人 p.396:19)
- ③ 「私がワルインツォーフにね、保養のために、貴女をもお誘ひ申して、旅行しないかと云つて勸めてゐたんです。」(『うき草』レジネフ→アレクサンドラ p.110:上4)
- ④ 「おいおい、お頼ん申しますぜ。僕の言ふ事を理想と聞くやうぢや、君も余程焼が廻つてる。僕は事実を言つてるんです、」(『其面影』葉村→哲也 p.41:上18)
- ⑤ 「どうもお待せ申しまして」(『平凡』お糸→私 p.320:18)

고마쓰히사오(小松寿雄)에 의하면, 「申す」는 오래전부터 다용되어 온 동사로, 이미 전(前) 시대부터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에도(江戸)시대의 의미·용법도 이를 계승하여 매우 복잡하다고 한다.

형태상으로 보면, 본래의 동사로서의 독립적인 용법, 명사나 동사 연용형에 붙는「一申す」의 용법, 「お一申す」의 용법, 「申つくる」등의 「申一」의 용법 등이 있다. 의미적인 면에서 보면, 「言ふ」의 겸양어(本動詞), 동사 등의 동작주와 동작을 받는 상대의 관계 규정(「お一申す」「一申す」, 오늘 날의「ます」에 가까운, 소위 정중의 의미(「一申す」) 등이 있다¹¹⁾.

10) 하야시시로(林 四郎)의, 『敬語用法辞典』, 明治書院, 1974, p.199.

11) 【まうす(申す)】 상대(上代)의 형태는 「まをす」. 동사 「まうす」가 다른 동사에 붙어 「まうす」가 갖는, 상위자에 대한 「言う」의 의미, 또는 「奉仕する」란 의미를 그 동사에 첨가하거나 단순히 그 동작의 대상을 존경하는 용법으로 된 것. 「一申し上げる」의 의미이지만, 그 중에는 「そのことについて言上する」, 「してさし上げ

「お(ご)一申す」는, 본래는 꽤 높은 대우도를 갖고 있던 겸양표현이었지만, 『浮雲』나 『めぐりあひ』에서는 상하관계(上下関係)의 규정보다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좀 더 대우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お(ご)一申しあげる」는 1기 작품인 『浮雲』나 『めぐりあひ』에는 그 용례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쓰지무라(辻村)에 의하면 3기 말(末)경이 되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お(ご)一申す」는 『うき草』에 21례, 『片恋』에 4례, 『平凡』에 1례, 『其面影』에 5례로 『うき草』를 제외하면 사용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용례수에 비해 용례 사용자는 다양한 편이지만, 사용된 동사는 기다리다(待つ), 부탁하다(頼む), 바라다(願ふ)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お(ご)一する」

- ① 「アア恥かしい。モウこうなれば打散けてお話し^すしまおう」(『浮雲』文三→お勢 p.55:9)
- ② 「それにまた一方から云っても、その感じは如何な種類のもので有ったか、それをお咄^すしする必要もないからして。ガ只どうして貴嬢を二度まで御見かけ申したか、それをお咄^すして置きたいです…」(『めぐりあひ』自分→美婦人 p.397:5)
- ③ 「然うです、ナターリヤさんとお話し^すてゐたです、ナターリヤさんの仰しやつた事が酷く胸に申つたものですからな…」(『うき草』ルーヂン→ワルィンツォーフ p.53:下4)
- ④ 「私悪い所は幾重にもお詫^すしますからね、勘辯^すして下さいな。」(『其面影』小夜子→時子 p.108:上8)
- ⑤ 「まあ、自分の勝手なお饒舌^すばかりか^すしてゐて、お爛^すが全然冷めた。」(『平凡』お糸→私 p.332:10)

る」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다.

親ののたまふことをひたぶるにいなび申さむ事のいとほしさに、(竹取物語)
ただなにがしらが、わたくしの君と思ひ申して、いただきになむ捧げ奉るべき、(源氏物語)

(松村 明, 『日本文法大辞典』, 明治書院, 1971, pp.777-780)

비교적 새로운 형식인「お(ご)ーする」는 『浮雲』에 2례, 『めぐりあひ』에 2례 나타나 있다. 이 표현형식은 상하의식에 그다지 구애받지 않는 친구 사이나 가족 간의 대화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위 용례에서와 같이 『浮雲』에서는 사춘 남매간에 사용되거나, 신분상 하위자이지만 文三에 대해 그다지 상위자란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お鍋가 文三에 대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상하관계나 분명히 구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그다지 상하의식을 갖지 않는 장면에서의 표현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うき草』와 『片恋』에도 각각 10례, 6례 나타나 있으며 주로 젊은 지식층 남녀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의미상으로는 경의와 관계없이 화자의 품위유지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3기 작품인 『平凡』과 『其面影』에도 각각 1례, 25례 나타나 있다. 용례 사용자는 お糸, 俊子, 小夜子, 時子와 같이 주로 젊은 여성이며 이야기 상대도 연배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젊은 남녀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형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우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3-(3)「お(ご)ーいたす」

①「^{くどい}から、私も最うお暇致しますが、唯可厭やうだが私は決して悪意があつて参つた訳ぢやない、それだけはお含み置き下さい…」
(『うき草』ルーヂン→ワルィンツォーフ p.92:上16)

②「おや、私にや到底家の經濟はお引受出来かねますから、今日限りお断り致します。」

(『其面影』時子→哲也 p.73:下15)

③「お掃除致しませう」(『平凡』お糸→私 p.326:2)

「お(ご)ーいたす」는 1기 작품에는 사용례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2기의 『うき草』에 2례, 3기의 『平凡』과 『其面影』에 각각 1례, 3례 나타나 있으며, 모두 루진이 와루인초프에 대해 사용하고 있다. 위 용례 ①의 경우 화자인 루진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와루인초프에게 예의를 갖춰 이야기하는 장면이며, 더구나「ます」를 붙인「お(ご)ーいたします」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루진이 와루인초프에 대해 매우 정중하게 격식을 차려 대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其面影』의 경우 「お(ご)ーいたす」는「お(ご)ーする」에 비해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라던가 사과하는 장면 등, 대화 장면 자체가 매우 경직된 분위기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浮雲』, 『めぐりあひ』, 『片戀』, 『うき草』, 『其面影』, 『平凡』에 나타나 있는 관계적 표현형식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각 작품별 시기별로 사용도수와 사용자수를 정리해 보면 <표3>과 같다.

<표3> 『浮雲』, 『めぐりあひ』, 『片戀』, 『うき草』, 『其面影』, 『平凡』에 나타나는 관계적 표현형식의 사용 분포

	1기				2기				3기			
	浮雲		めぐり あひ		片戀		うき草		其面影		平凡	
	사용 도수	사용 자수	사용 도수	사용 자수	사용 도수	사용 자수	사용 도수	사용 자수	사용 도수	사용 자수	사용 도수	사용 자수
おー 申す	12	4	3	1	4	2	21	7	5	4	1	1
おー申し あげる	0	0	0	0	0	0	0	0	0	0	0	0
おー する	2	2	2	1	6	3	10	3	25	5	1	1
おー いたす	0	0	0	0	0	0	2	1	3	2	1	1

<표3>에 의하면 1기 작품인 『浮雲』와 『めぐりあひ』에는 「お(ご)ー申しあげる」나 「お(ご)ーいたす」와 같은 표현형식의 용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아직 이들 표현이 활발하게 사용되던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사용자층도 매우 광범위한 「お(ご)ーする」형식도 비교적 새로운 형식으로 『浮雲』나 『めぐりあひ』에서 보다 2, 3기 작품에서의 활발한 사용을 볼 수 있다.

「お(ご)ーいたす」는, 「お(ご)ー申す」를 대신하여 점차 사용율이 높아진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2, 3기 이후가 되면 「ます」를 동반하여 「お(ご)ーいたします」형식으로 사용된 예를 볼 수 있다.

또한 「お(ご)ー申す」가 다른 형식에 비해 1기에서 3기에 걸쳐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お(ご)ー申す」형식이 의연히 그 세력을 지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III. 동작에 대한 표현형식의 신구(新舊)비교¹²⁾

「一なさる」는,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부터 계속 사용되어 온 존경어로서 독립된 형태로도 「一なさる」나 「お(ご)ーなさる」라는 형태로도 사용되었다. 특히 「お(ご)ーなさる」는 에도시대(江戸時代) 후기의 대표적인 경어형식의 하나였다고 한다.

「お(ご)ーになる」는 현대 경어에 있어 동사 표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 표현형식은 에도시대에 생겨났다고 한다.

쓰지무라도시키(辻村敏樹)에 의하면, 이 형식은 무가(武家)의 문장어(文章語)의 계통을 잇는 것으로, 근세 말기에 이르러 서민의 구두에도 오르내리게 되었는데, 일반화된 것은 1기 이후라고 한다. 에도시대에 생겨났지만,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 1기 이후이므로 비교적 새로운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お(ご)ーだ」는 원래 上方의 「お(ご)ーぢゃ」에 대한 관동형(関東型)이다. 「お(ご)ーぢゃ」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져왔기 때문에, 이것에 이것에 대응하는 것으로서의 「お(ご)ーだ」는 전기(前期) 에도어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간주된다. 즉 「お(ご)ーだ」는 전기부터 계승되어 온 에도어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래된 형식인 「お(ご)ーだ」는 2, 3기 이후에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한다.

후기 에도어인 「です」는, 처음에는 호기를 부리거나 연회석 등에서 분위기를

12) 쓰지무라도시키(辻村敏樹)의 『敬語史』(大書修店館, 1971)와 『敬語論考』(明治書院, 1992) 참고.

띄우는 남성 등 특수한 사람이 사용했던 것 같고, 활용형도 종지형뿐이었던 것이 막부말기의 인정본(人情本)에서는 일반 여성이 미연형이나 연용형도 사용하고 있고, 그 어감도 상당히 오늘날의 느낌과 같아져 있었다. 하지만 「お(ご)ーです」 형식이 일반화된 것은 3기 이후부터라고 한다.

「おーあそばす」형식은 근세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오래된 형식으로, 권유나 명령의 말투에 「遊ばせ」를 사용하여 (「御覧遊ばせ」「お話し遊ばせ」등) 「遊ばせことば」라고 불리기도 한다. 매우 정중한 말씨로 주로 상류사회 부인들이 사용하였다.

「(ら)れる」는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형식으로, 문장어에서 사용되어져 왔을 뿐 구어체에서는 그 용례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 가벼운 경의(敬意)를 나타내는 존경어였다.

「くださる」형식과「いただく」형식을 비교해 보면, 양 쪽 다 발생은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이지만, 일반화된 데에는 시대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くださる」식의 말투보다 「いただく」식의 말투가 새로운 표현형식이라고 보는데, 「いただく」식의 표현형식이 일반화된 것은 2, 3기부터라고 한다.

「お(ご)ーする」와 「お(ご)ーいたす」형식의 경우, 「お(ご)ーする」는 2기 초에 성립한 새로운 표현형식이며, 「お(ご)ーいたす」는 「お(ご)ーもうす」를 대신하여 점차 사용율이 높아진 표현형식이다.

또한 「お(ご)ーもうす」와 「お(ご)ー申し上げる」형식의 경우에서, 「もうす」는 고대부터 사용되어 온 형식으로 「お(ご)ーもうす」는 3기 말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お(ご)ー申し上げる」는 3기 말경에 사용하게 된 표현형식이다. 이들 형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면 <표4>와 같다.

<표4> 二葉亭四迷의 작품에 나타나는 동작에 대한 대우표현형식의 신구(新舊)비교

	구형식(旧形式)	신형식(新形式)
「お(ご)ーなさる」	에도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경어형식	
「お(ご)ーになる」		일반화 된 것은 1기 이후이지만, 3기가 되어서야 정착
「お(ご)ーだ」	에도시대 전기부터 계승되어온 에도어의 특색	2, 3기 이후에 쇠퇴

「お(ご)ーです」		일반화 된 것은 3기 이후
「お(ご)ーあそばす」	근세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구형식	
「ー(ら)れる」	구형식으로 문장에서 자주 사용됨	
「ーくださる」	무로마치시대에 생긴 오래된 형식	
「ーいただく」	무로마치시대에 생긴 오래된 형식	발생은 무로마치시대이지만 일반화 된 것은 2, 3기
「お(ご)ーする」		2기 초경에 성립된 새로운 형식
「お(ご)ー申す」	고대부터 사용되어 온 형식으로 3기 말까지 주류를 이룸	
「お(ご)ー申しあげる」		3기 말경에 사용하게 된 형식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二葉亭四迷의 작품에 나타나 있는 동작에 대한 대우표현형식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대우표현형식 중에 「お(ご)ーなさる」형식이 가장 많은 용례수를 보이는데, 그것은 이 형식이 이들 작품이 쓰인 시대를 대표하는 형식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お(ご)ーだ」형식 또한 1기부터 3기에 걸쳐 작품 안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온 형식임을 알 수 있다.

한편 「お(ご)ーなさる」형식과 대비되는 신형식으로 「お(ご)ーになる」가 있는데, 현대경어에서 경어의 동사표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お(ご)ーになる」는, 3기가 되어서야 정착하게 된 어라고 말해진다. 그 때문인지 1기 작품에는 그 용례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2, 3기 작품에서는 그 용례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くださる」식의 말투와 「いただく」식의 말투를 비교해 보면, 오래된 형식인 「くださる」식의 말투가 「いただく」식 보다 다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ーてくださる」형식은 대상 작품 전 작품에 걸쳐 고르게 사용되고 있었지만, 「ーていただく」형식은 2, 3기 작품에 용례가 더 많았으며, 「お(ご)ーいただく」형식의 경우는 용례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은 「お(ご)ーもうす」형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 형식인 「お

(ご)もうす』가 자주 사용되고 있었던 것에 비해, 『お(ご)もうす』를 대신 하여 점차 사용율이 높아지고 있었던 『お(ご)いたす』는, 2, 3기 작품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현대어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인 『お(ご)する』도 『うき草』와 『其面影』에 이르러서야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들 작품이 쓰인 시대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형식이 여전히 다용되고 있는 한편 2, 3기가 되면 점차 새로운 형식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 참고 문헌

- 辻村敏樹, 『敬語論考』明治書院, 1992.
 辻村敏樹, 『敬語の用法』角川書店, 1991.
 森岡健二, 『近代語の成立』明治書院, 1991.
 山崎久之, 『統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武蔵野書院, 1990.
 文化庁, 『待遇表現』文化庁, 1987.
 松村 明, 『江戸から現代へ』『近代の国語』桜楓社, 1977.
 大石初太郎, 『待遇語の体系』表現社, 1976.
 田中章夫, 『敬語関係用語集』『敬語用法辞典』明治書院, 1974.
 辻村敏樹他, 『明治大正時代の敬語』明治書院, 1974.
 小松寿雄, 『近代の敬語II』『敬語史』大修館書店, 1971.
 国立国語研究所, 『待遇表現の実態』秀英出版, 1971.
 塩口玲子, 『待遇表現の考察』日本文学, 1967.
 堀井令以知, 『語源大辞典』東京堂出版, 1988.
 北原保雄他, 『日本文法事典』有精堂, 1981.
 林 巨樹, 『国語史辞典』東京堂出版, 1979.
 松村 明, 『日本文法大辞典』明治書院, 1971.

❖ ABSTRACT

A study of polite expressions mentioned in Hutabateisimei's
literature
- Forms of expressions about activity

Lee Yeo Hee

The polite activity means relationship of people when they express their activities. One of polite expressions is 「o(go)-ninaru」; 「oyomininaru」, 「osyuppatuninaru」. Its expression leads to use natural politeness and avoid expressing directly. 「-ni naru」 is the same form such as 「nartuga sugite akininaru」 and 「ituno manika otonaninaru」. In this way, polite activities has been studied as polite expressions.

I will state forms of expressions about activity polite in the Hutabateisimei (二葉亭四迷)'s literature.

Tujimuratosiki(辻村敏樹) classified objective form, relative form, and beneficial form for expressions of activity in the 「Meijitaisyoujidaino keigo(『明治大正時代の敬語』)」. I use this theory and I state historical point of view.

I divide a period in the identify of written and spoken language (genbunitchi) as the first period; Meiji 20's, the second period; Meiji 30's, the third period; since Meiji 30's.

Objective expression is an absolute form. There are 「o(go)-nasaru」, 「o(go)-ninaru」 and so on. Beneficial form is connected with advantage and disadvantage among people. There are 「o(go)-kudasaru」, 「o(go)-itadaku」 and so on. Relative form is related to activity of people. There are 「o(go)-mousu」, 「o(go)-suru」 and so on.

「o(go)-nasaru」 is the most form in the Hutabateisimei(二葉亭四迷)'s literature. The form is popular in Meiji. 「o(go)-da」 is used constantly from the

first period to the third period.

Contrary to 「o(go)-nansaru」, 「o(go)-ninaru」 used generally in these days is fixed in the third period. The form is merely used in the first period and the second period.

Compared 「kudasaru」 and 「itadaku」, 「kudasaru」 is used more than 「itadaku」. 「o(go)-mousu」 is the same occasion. 「o(go)-itasu」 instead of 「o(go)-mousu」 which is traditional form appears in the second period and third period. 「o(go)-suru」 used generally in these days appears in the 「ukigusa(『うき草』)」, 「sonoomokage(『其面影』)」.

Polite expressions extremely changed in the identify of written and spoken language. However, polite forms have used since a long time ago, new forms also are added.

Key Words

objective form, relative form, beneficial form

논문접수일: 2008. 4. 26.

심사완료일: 2008. 5. 30.

게재확정일: 2008. 6. 13.